

이 책을 말한다

신선한 생명의 샘물 같은 글

《노평구 전집》(전5권)

이기백

한림대 명예교수 · 한국사

순의 주자학적 경학과 대비될 수 있고, 또 실학에 대한 일반적 견해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된다.

근대 유학에서 위정척사론을 표출시킨 반면에 이른바 한말 성리학은 분산되어 그 이론의 다양성과 독창성이나 교차하던 논쟁의 격렬함을 생생하게 부각시키지 못한 감이 든다.

마지막 장에서 현대 유학자·유교사학자들을 다루면서 아직 살아있는 인물들을 언급한 것도 통사적 서술체제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유학사를 저술한 분들이 자신보다 한세기 앞에서 끝맺은 것은 많은 사람들의 공론을 기다리고 공정한 평가를 기억하기 위한 조심성 때문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다시 돌아보면 최영성씨의 《한국유학사상사》 다섯권은 20세기 한국유학사 연구의 결정판이 되고, 21세기 한국유학사 연구의 출발점에 뚜렷하게 서 있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

· 《한국유학사상사》(전5권)/최영성 지음
아세아문화사/A5신/각 450면 내외/각 12,000원

현대 한국에서 종교가 짊어져야 할 임무는 무엇일까. 그것은 도덕적 양심의 보루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실을 해방 직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50여년간 일관되게 외쳐온 분이 곧 이 전집의 저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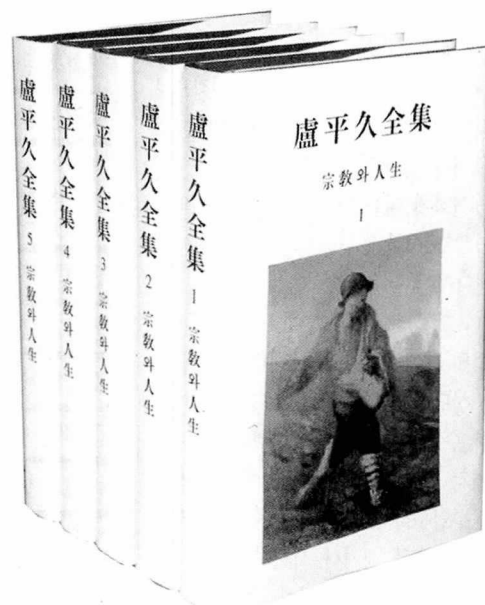
저자는 간행사의 첫머리에서 "2차 대전 후 해방과 함께 서울의 정치적 광란 속에서 나는 종교에 의한 국민의 도덕적인 자각을 급선무로,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 기독교의 진정한 신앙 정착이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였다. 저자가 1946년에 창간하여 지금까지 계속해서 간행하여온 《성서연구》는 이같은 저자의 뜻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순수한 종교적 개인 잡지로서 《성서연구》는 금년 5월 현재 476호를 간행했다. 저자는 지금 85세의 고령이지만 아직도 계속 간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성서연구》의 권두문을 주로 모아서 엮은 것이 《종교와 인생》이란 제목으로 간행된 이 다섯권인데, 이 다섯권에 일반 국민을 향한 저자의 주장이 가장 잘 나타나 있다.

혹은 이 책이 딱딱한 도덕적 교훈으로 가득한 책이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 책에는 우리나라의 사회·정치·가정·문화 등의 구체적 문제에 관련된 발언이 포함되어 있다. 또 넓게는 인류 전체의 모든 부문에 관한 글이 실려 있다.

저자는 문장을 아름다운 문구로 수놓을

이 책이 딱딱한 도덕적 교훈으로 가득한 책이라고 생각할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책에는 우리나라 사회·정치·문화의 구체적인 문제, 넓게는 인류 전체에 관한 글이 실려 있어 신선한 생명의 샘물 같다.



줄을 모른다. 단도직입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명쾌하게 한다. 이것은 절대자 이외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저자의 신앙의 타이겠지만, 또 참된 의미의 애국심의 표현이기도 하다.

저자는 배재중학 3학년 때에 광주학생운동에 관여하여 1년간 투옥되었다. 출감 후에 학업의 길이 막히자 서울의 토막 빈민촌에서 무산이동의 교육에 종사하였다. 그러다가 인생 문제에 고민하던 저자는 《성서조선》을 간행하던 김교신(金敎臣)의 지도로 기독교 신앙운동에 전념하고, 일본에 가서 무교회 계통의 스카모토(塚本虎二)에게서 성서공부를 하였다. 해방 후 귀국하자 1946년에 《성서연구》를 창간하고, 일요일마다

성서강의를 해왔다. 저자의 깊은 민족적 사명감이 이같이 오직 한길을 걸어오게 한 것이다.

저자의 전집은 더 많이 계속해서 간행될 것이다. 그러나 일반 국민과 관계가 깊은 글들이 이 《종교와 인생》이란 제목으로 묶여진 다섯권이다. 민족적인 위기에 처한 우리 국민이 이 책에서 신선한 생명의 샘물을 마실 수 있게 되길 바란다. ◆

미리가 본 21세기

-21세기는 이렇게 바뀐다-
현원복 저/ A5/ 245P/값 6000원

정보통신 ◆ 생물공학 ◆ 첨단 기계기술 ◆ 새로운 소재
첨단 교통기술 ◆ 대체 에너지 ◆ 거주환경의 개선
인류의 우주진출 ◆ 환경기술

검지사 과학 기술서
서울 마포구 서교동 375-13
TEL 335-1985, FAX 335-1986

表面의科學

아기다 요시오 저/백낙승 역/값 8,000원

중·소형 소각로

김향원 저/값 18,000원

全世界規格事典

국제규격 연구회 편/값 18,000원

原子力の政治經濟學

T. 프라이스 저/박정택 역/값 15,000원

러시아科學紀行

김역식 저/값 7,000원

표면의 개념/원자와 분자/액체와 콜로이드/금속의 표면/고분자의 표면/생체의 표면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 당국자와 실무자 모두를 위한 소각로 설치계획 및 운용에 관한 지침서

국제규격(ISO, IEC 등) 약 350건, 판공서 규격 약 100건, 국가규격 등 주요 해외단체 규격 600여건을 수록

원자력의 전반적인 문제, 즉 기술문제에서부터 정치·경제·사회·군사·외교 문제에 이르기까지 편견없이 균형 있게 다루고 있다.

초대 러시아 주재 한국 과학관이 살펴 본 러시아의 첨단 과학기술의 현황과 예견되는 21C 신기술들 및 러시아의 과학기술 관련 기관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검지사 과학 기술서
서울 마포구 서교동 375-13
TEL 335-1985, FAX 335-1986